

마르코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정 영 국

필리핀 Moro 분리독립운동은 제3세계 다종족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극빈형성의 위기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종족 분리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지배종족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對 소수종족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동태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Moro는 하나의 단일한 소수종족이 아니라, 카톨릭이 지배종교인 필리핀 사회에서 이슬람을 신봉하는 13개의 문화적·언어적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신앙을 매개로 한 일종의 종교적 소수종족이다.

기독교도들과 Moro간의 종족갈등은 스페인 통치 아래 지속되어 온 것으로, 다른 사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제촉면에시의 긴장이란 시각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종족의 분리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은 정치적인 요인과 보다 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로민족해방전선(MNLF)」이 무장투쟁 노선을 채택한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역임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킨 1972년부터였다. 또한 1986년 아래의 필리핀 민주화의 전진은 MNLF의 무장투쟁 노선의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다종족 사회의 종족갈등은 근본적으로 지배종족과 소수종족간의 문화적,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은 정치적인 요인들, 즉 국가의 对 소수종족 정책, 국가의 역압적 능력, 소수종족 내의 웅진성 및 리더쉽 등에 의해 보다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I. 문제의 제기

1993년 3월 25일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the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 ARMM)은 아끼노 대통령 당시인 1990년 2월 17일에 이어 두번째의 자치지역 의회 및 長 선거를 평화적으로 치루었다.¹ 필리핀 사회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Moro 분리독립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ARMM으로 안정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곧이어 발표된 다음과 같은 「Moro 민족 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MNLF)과 「필리핀 정부군」(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FP)간의 성명전 공방은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 제동을 건다.

“우리는 평화회담과 관련하여 필리핀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거부한다. 정부가 문제해결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성전(聖戰)이며 모든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¹ 이 선거에서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이 이끄는 Lakas-NUCD-United Muslim Democrats of the Philippines은 Linigding Pangandaman과 Nabil Tan을 ARMM 장관과 차관으로 당선시켰고, 자치지역 의회 의석 21석 중에서 16석을 확보하였다. *The Manila Times*, April 2, 1993.

무슬림은 싸울 권리가 있다. … 무슬림의 전략은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적이 공격한다면, 그 때가 복수를 감행할 때이다. 그리고 정부군이 바실란(Basilan)의 우리 군대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Manila Bulletin*, April 10, 1993)

“만약 반란자들이 특히 쿨루(Sulu)지역에서 테러활동에 가담한다면, AFP는 그들에 대해 주저없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다.”(*Manila Bulletin*, April 11, 1993)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와 쿠루 지역을 중심한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은 아직도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NPA)의 도전과 함께 필리핀의 정치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변수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다종족 사회인 필리핀에서 Moro는 하나의 단일한 소수종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가톨릭 교도들에 대항하는 민다나오와 쿠루지역의 무슬림 교도, 즉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집단들로 구성된 무슬림 교도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나.² Moro는 필리핀 사회에서 종교적 차원의 소수종족인 것이다.

이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운동 역사는 멀리 스페인 식민통치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무장분리독립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1971년 미주아리(Nur Misuari)가 주도하는 「Moro 민족해방전선」(MNLF)이 결성되면서부터였다.³ 특히 MNLF의 활동은 NPA와 함께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시도한 계엄령 선포의 주요한 명분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 후 필리핀 중앙정부와 MNLF간에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6년 민다나오 지역의 자치를 허용하는 이른바 「트리폴리 협약」(Tripoli Agreement)과 휴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1993년 라모스 대통령이 국민화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에도 MNLF는 무장분리독립운동을 고수하고 있다.

다종족 사회에서 모든 소수종족들이 분리독립운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수종족의 무장분리독립운동은 곧바로 지배종족의 무력진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부담이 높은 생존전략이다. 그러면, MNLF의 무장분리독립운동 노선이 많은 Moro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MNLF의 무장투쟁을 가능케하는 동력은 무엇이며, 그것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필리핀 사회에서 Moro들 내의 문화적, 종교적 이질성이 상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을 기점으로 무장분리독립운동이 전개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1986년 이후 필리핀 정치민주화의 진전은 Moro 분리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아끼노 성권 아래 중앙정부의 ARMM 자치허용과 전반적인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MNLF의 무장투쟁노선은 여전히 그 세력

² Moro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Mauri족이나 Mauretania족에서 연유한 것이나, 16세기 스페인 통치자들이 이를 민다나오 무슬림 교도들과 자신들에게 보다 잘 알려져 있는 Moors족을 혼동한 네서 도입한 용어이다. 그 후 Moro라는 용어는 필리핀에서 Muslim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로 사용되어 왔다 (Che Man, 1990:44; Wurfel, 1988:29).

³ Moro 저항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Gowing, 1979:166-198)을 참조하라.

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Moro 분리독립운동의 근원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와 소수종족간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분리독립운동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분리독립운동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었고, 또 변화하였던 마르고스 권위주의체제 기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II. 소수종족 분리독립운동을 보는 시각

다종족 사회는 국민일체감 형성을 위한 공통된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종족간 갈등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을 내재하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전후 다종족 사회에서의 종족간 갈등의 분출은 이를 확인해 주는 사례들이며, 따라서 종족갈등 문제가 제3세계 정치연구에서 또다른 중요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종족갈등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갈등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기준의 논의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배종족과 소수종족 간의 힘의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 또는 통치론적 관점이다. 이는 종족갈등, 특히 소수종족들의 저항운동이나 분리독립운동이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치력 침투가 미흡한 것에 연유한다는 입장이다. 즉 다종족 사회의 정치적 안정은, 식민통치 시기의 식민종주국의 억압통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종족간 갈등의 억제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의 존재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Furnivall, 1948:303-312). 따라서 이 견해는 소수종족들의 저항이나 분리독립운동의 분출을 지배종족, 특히 국가의 억압통제능력의 취약성에서 찾는 통치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소수종족들의 저항운동은 酢소련이나 유고연방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압적 국가의 통제가 급속히 약화되는 시점에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족분규의 현재화는 지배종족과 소수종족간의 힘의 균형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종족분규의 역동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다종족 사회에서의 정치적 안정을 단순히 분규없는 상태로 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족갈등의 내재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 관점은, 예를 들어, 필리핀 Moro 분리독립운동이 1972년 마르고스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가 강화될 수록 더 확산되었던 경우 등과 같이 국가의 강압적 통제의 강화와 소수종족 저항운동의 쇠퇴가 비례하지 않는, 오히려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많은 현실적 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종족간 문화적 이질성에 따른 갈등을 강조하는 문화갈등론적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종족공동체”(ethnic community)란 “다른 종족들이 지니고 있지 않는 일단의 전통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의식적 집단(a self-perceived gro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e Vos and Romanucci-Ross, 1975:9). 이같은 종족공동체의 자의식은 전승되어 오

는 민족신화나 고유한 문화의 공유, 또는 역사적 지속성이나 특정 지역(말하자면 고국)에 대한 애착 등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종족들과 이질적인 문화적 연대가 크면 클 수록 종족적 정체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Smith, 1987: 24-28). 한 사회 내에서 이러한 이질적 문화들에 기반한 종족공동체들의 혼재는 그 문화적 차이 및 간동에 의해 종족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잠재하며, 특히 문화적 충돌에 의한 종족간 갈등의 심화는 종족분규와 분리독립운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 즉 소수종족의 저항운동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연대의 파괴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mith, 1982). 이런 점에서 다종족 사회에서 지배종족의 종족동화정책은 종족분규의 핵심적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소수종족의 저항운동에 대한 이같은 문화론적 관점은 종족분규의 잠재적 근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이질성이 종족분규의 잠재적 근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이질성이 왜 특정한 시점에 종족분규로 현재화되며, 나아가 극단적인 무장분리독립운동으로 분출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데, 지배종족에 의한 종족동화정책이 강요되는 상황에서도 이질적 문화를 지닌 모든 소수종족들이 이에 저항하거나, 특히 분리독립운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동화정책을 강요하는 지배종족의 통제력과 소수종족의 저항능력간의 힘의 균형상태, 소수종족 내부의 결속력 및 지도력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론적 관점은 소수종족 저항이나 분리독립운동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저항이나 분리독립운동의 역동적 전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종족분규의 원인을 근대화의 결과에서 찾는 근대화론적 관점, 또는 사회경제적 관점이다. 다종족 사회에서 지배종족의 중심부와 소수종족의 주변부간의 지역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이른바 “내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를 종족분규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즉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과 그 결과로서의 종족적 경계와 일치하는 “노동의 문화적 분업”(the cultural division of labor)은 소수종족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여 종족분규를 촉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Hechter, 1975:30; Stone, 1979: 255-259).

지배종족과 소수종족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수종족의 지배종족에 대한 저항적 종족유대감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종족분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관점일 수 있다. 지역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다종족 사회가 아닌 사회에서도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심지어 그러한 불평등이 이질적인 종족간의 경계를 따라 구조화될 때, 사회불안정의 가능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란 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 불평등과 무관한 보다 균원적인 종족정체의식의 힘을 간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Connor, 1984:342-359), 나아가 역시 종족분규의 역동적 전개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위에서 제시된 각 관점들, 특히 문화갈등론적 관점과 근대화론적 관점은 다종족 사회

에서 소수종족의 분규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그러나 소수종족 분규의 원인도 위의 어느 한 변수에 의해 배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변수에 의해 소수종족의 분규를 설명하기에는 각 다종족 사회가 직면하는 소수종족문제의 양상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다(Wood, 1981).

나아가 이들 관점들은 소수종족 저항운동, 특히 분리독립운동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닌 정체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역시 지배종족이 지배하는 국가와 소수종족간의 힘의 균형관계, 국가의 소수종족에 대한 정책내용, 그리고 소수종족의 내적 결속력과 지도력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종족분규의 전개양상은 지배종족과 소수종족간의 힘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선 종족들간의 권력적 힘의 배분상태는 종족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지배종족이 지배하는 국가의 통제력이 소수종족의 저항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할 때, 비록 문화적 이질성과 “내적 식민주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수종족의 저항운동은 현재화되거나 또는 현재화되어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국가의 통제력이 소수종족의 지역에 충분히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수종족 사회의 권리구조를 파괴하는 국가권력의 침투 그 자체가 종족분규를 촉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자만(Brown, 1988:54), 소수종족의 저항운동, 나아가 분리독립운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국가의 소수종족에 대한 정책내용에 따라 종족분규가 완화될 수도 있고, 극단적인 분리독립운동으로 심화될 수도 있다. 국가가 소수종족에 대해 동화정책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종족차치주의를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국가가 기존의 종족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느냐 반대로 심화시키는 또는 소수종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소수종족들의 지배종족에 대한 저항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소수종족의 저항운동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국가정책적 요인들이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소수종족 구성원들을 저항운동에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내적 응집력 및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저항운동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소수종족 내의 파벌투쟁은 이들의 저항운동을 저해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되며(Brown, 1988:55), 동시에 국가가 소수종족에 대해 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치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종족간의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경제적 차별성이 심화되어 있는 다종족 사회에서 충분한 사회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국가가 소수종족에 대한 억압적, 차별적 정책들을 지속시켜 나갈 때, 그리고 소수종족 구성원들의 내적 응집력 및 효과적인 지도력이 구비되어 있을 때, 소수종족 분리독립운동이 발생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리독립운동은 기존 국가가 강요하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종족집단의 자율성과 자결권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그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이탈하려는 국단적인 종족분규 양식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종족분규와는 질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점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지배종족의 중심부로부터 지리적 거리의 문제이다. 중심부와 인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종족은 분리독립을 위한 각 가지의 여건들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분리독립운동이 국가의 즉각적이고 가차없는 진압작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이를 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가능한 중심부로 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의 소수종족들이 분리독립운동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리적 경계와 종족적 분포의 일치 또한 중요한 추가변수가 된다. 분리독립운동은 우선적으로 소수종족이 정치적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뿌렷이 분리된 지역을 필요로 한다. 다종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결코 특정소수종족의 효과적인 분리독립운동의 지속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Che Man, 1990:11). 이외에도 소수종족에 대해 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외국지원세력의 존재여부도 그러한 분리독립운동의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필리핀 Moro 분리독립운동의 출발과 전개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문화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Moro 분리독립운동의 출발을 가져온 동력적(또는 배경적) 요인으로 파악될 것이며, 그 후의 분리독립운동의 구체적 전개과정은 국가와 소수종족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설명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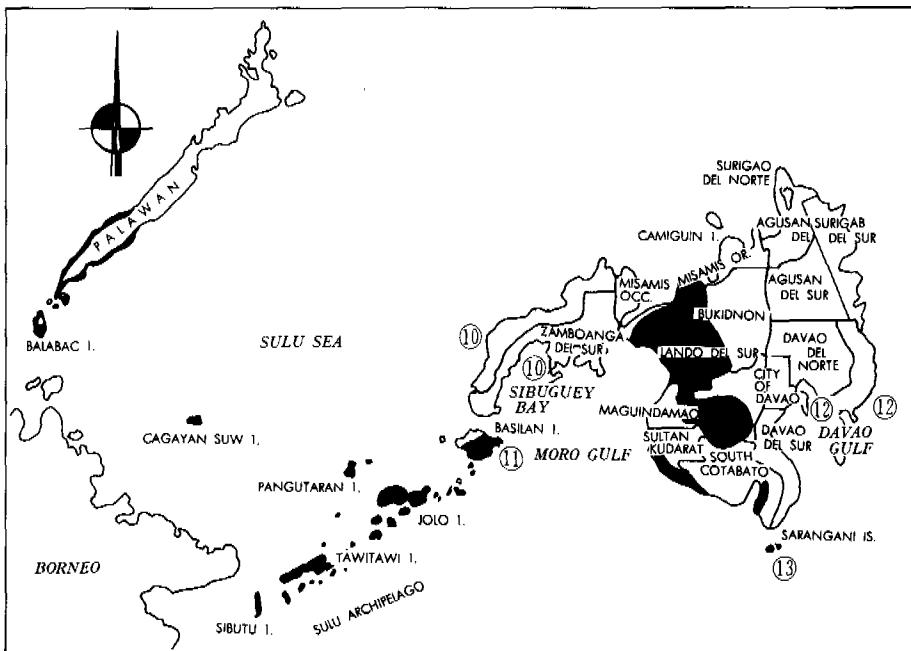
III. Moro 분리독립운동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

1. Moro의 지리적 분포와 인구구성

Moro는 필리핀의 중심부인 루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남단 지역인 남부 민다나오, 줄루 군도 및 남부 빨라완(Palawan)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1975년 Moro는 필리핀 전체 인구 5천 5백 6십만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인 2백2십만여명으로 추산되었으나, 물론 많은 무슬림들은 이 숫자가 지나치게 하향적인 추정이며 실제 규모는 약 5-6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oro의 인구규모에 대한 통계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들이 필리핀의 가톨릭 교도들 보다는 인구성장률이 뒤진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다(Gowing, 1979:1).

이들 Moro들은 하나의 단일한 종족이 아니라, 13개의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Moro연구의 타월한 개척자였던 고윙(Peter G. Gowing)은 Moro들을 지리적 분포에 따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네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빨라완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빨라완 집단」(Palawan Group)으로 이에는 빨라완(Palawan), 모르복(Molbog), 자마 마풀(Jama Mapun)의 세 종족이 속한다. 줄루 군도 일대에 분포해 있는 「줄루 집단」(Sulu Group)에는 따우숙(Tausug), 사마르(Samals), 및 바

쟈우(Bajau)의 세 종족이 속해 있다. 그리고 빈다나오 남서부에 집중해 있는 「민다나오 집단」(Mindanao Group)은 마라나오(Maranao), 이라눈(Ilanun), 마귄다나오(Maguindanao), 꿀리부간(Kolibugan), 야칸(Yakan), 까라가(Karaga), 및 상길(Sangil) 등 7개의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꼬따바또 지역(the Cotabato region)에 분포되어 있는 마귄다나오족이 674,000명, 라나오 지역(the Lanao region)의 마라나오·일라눈족이 670,000명, 빛 줄루 군도의 파우숙족과 사마르족이 694,000명으로 전체 Moro인구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1979:1-2).



출처: Gowing(1979).

역사적으로 Moro들이 거주해왔던 이른바 "Moro의 땅"(Moroland)은 위의 지리적 분포도에서 보듯이 민다나오 섬 남서부 지방인 꼬따바또 지역, 줄루군도 및 레이크 라나오 지역(the Lake Lanao region)이다. 꼬따바또 지역은 현재 행정적으로 「북 꼬따바또」(the North Cotabato), 「남 꼬따바또」(the South Cotabato), 「마귄다나오」, 및 「술탄 꾸다라뜨」(Sultan Kudarat)의 네개 주로 구분되어 있다. 레이크 라나오 지역은 「북 라나오」(Lanao del Norte)와 「남 라나오」(Lanao del Sur)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잠보앙가 반도(the Zamboanga Peninsula)에서부터 보르네오(Borneo) 동북부에까지 뻗쳐 있는 줄루

구도는 「바실란」(Basilan)과 「줄루」, 그리고 「따위-파위」(Tawi-Tawi)로 구분되어 있다 (Gowing, 1979:6-9).

전후 이들 “Moro의 땅”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기독교도들의 대량 이주로 이들 지역에서 Moro 인구구성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신생 독립국으로서의 필리핀은 루손(Luzon)과 비자야(Visayas) 지방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압력과 Huks 농민반란 등의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성채 중의 하나로 Huks 가담 농업노동자들의 민다나오 등 “Moro의 땅”으로 이주를 장려하였다(Gowing 1979, 189-191; Kerkvliet, 1977). 그 결과 민다나오 전체 주민들 중 Moro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낮아졌다. 1948년 민다나오 주민들 중 약 32%를 차지하던 Moro의 비중이 1970년에는 21%로 떨어졌던 것이다(Che Man, 1990:25 table 1.2). 그리고 1977년 “Moro의 땅”에 속하는 10개의 주 중에서 5개 주만이 Moro의 비중이 우세한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즉, 줄루 주와 남 라나오 주, 그리고 따위-파위 주는 거의 Moro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마귄다나오 주에서는 86%, 바실란 주에서는 67%정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북 라나오 주에서는 36%, 북 꼬따바또 주에서는 17%의 비중에 지나지 않았다(Che Man, 1990:44-45, f3; Majul, 1985:74).

필리핀 기독교도들의 이주는 이미 미국 식민통치시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독립 후 시기인 1950년대의 10년동안에 이 지역 Moro의 비중을 32%에서 23%로 단숨에 약 10%를 하락시킬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같은 기독교도들의 대량이주는 곧 바로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Moro들과의 직접적인 문화적 충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Moro와 기독교도들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2. 기독교도들에 대한 저항의 역사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종족들로 구성된 필리핀 Moro를 하나의 “종족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복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슬림”이란 “신(Allah)의 의지에 복종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닌다. 무슬림에게는 신과 그의 예언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복종이 요구되며, 모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슬람 율법”(sharia)에 따라 행할 것이 요구된다(Gowing, 1979: 16-17). 따라서 필리핀 Moro 사회는 철저히 이슬람 율법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정치적 권위의 위계구조 또한 종교적 권위구조와 중첩되어 있다. 즉, 무슬림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적 및 정치적 권위를 장악하는 것은 술탄(Sultan)이다. 술탄은 율법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로서 종교적, 정치적 차원의 최고권위를 동시에 장악하는 최고 통치자인 것이다. 술탄 아래의 권위구조들도 이같이 종교적 기능과 정치권력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 위계구조로 짜여져 있다(Che Man, 1990:30-31; Gowing, 1979:45-72).

공동의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는 것은 종족적 일체감의 형성에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공동의 신앙대상과 종교의식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

적 상징과 귀속의식을 발생시키며,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공통의 사명의식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쟁점이 종교적 교리와 연결되어 질 때, 그것은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동원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von der Mehden, 1968:147). 공통의 종교는 종족적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강력한 동원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지배적인 필리핀 사회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신앙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지닌 필리핀 무슬림을 하나의 종교적 종족으로 결속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Moro와 해외 무슬림들과의 형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었다(Suhrke and Noble, 1977:182).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필리핀 무슬림들이 스페인 식민통치 아래 끊임없이 기독교도들의 동화정책에 의해 위협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16세기 중반 필리핀을 점령한 스페인은 민다나오와 줄루군도에 대한 공격 목표를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스페인 통치권의 확립과 “Moro의 스페인화 및 기독교화”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Moro는 수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300여년에 걸쳐 이에 강력히 저항한 이른바 “Moro 전쟁”을 수행하였다. 필리핀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와 삶의 양식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바다에도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였다. 그들은 이슬람교와 무슬림 사회를 수호하기 위한 “성전”(聖戰, jihad)을 수행하였던 것이다(Gowing, 1979:29-31; Majul, 1973).

스페인의 뒤를 이은 미국의 식민통치에서도 Moro의 기독교화와 Moro사회를 필리핀 내로 흡수시키려는 통합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같은 미국의 식민통치는 Moro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구조 및 삶의 양식을 위협하고 파괴시켰으므로 역시 Moro의 저항운동을 야기시켰다(Che Man, 1979:46-56). Moro에게는 서구의 정치적 이념과 법률, 특히 기독교는 이슬람의 율법과 병행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곧 이슬람 신앙에 대한 도전이며 무슬림 사회의 전통에 대한 파괴를 뜻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과 미국의 “동화정책”은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Moro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와 삶의 양식을 파괴하려는 “동화정책”에 불과하였다(Gowing, 1979:210).

이같은 오랜 식민통치 기간동안의 저항운동은 이슬람교를 서구적 침입에 대응하는 저항운동의 동원 이데올로기로, 나아가 서구적 정치사회질서에 대항하는 혁명 이데올로기로 만들었으며,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집단들에게 하나의 종족으로서의 정체의식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런 점에서 Moro의 종족적 일체감과 공동체적 운명의식은 상당부분 식민통치 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Brown, 1988:63).

나아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통치는 필리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유산을 남겼다. 우선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을 기독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Moro에 대한 이들의 십자군적 의식을 남겼다. 그리고 Moro에게는 필리핀 기독교도들이 행하는 모든 정책들을 불신하게 만들어 우선적으로 방어적이고 저항적인 부정적 반응을 표출시키게 하였다. 또한, Moro와 필리핀 기독교도들이 각기 상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게 함으로

써 상호 경시와 적대의식을 내면화하게 하였다. 이같은 식민통치의 문화적 유산은 필리핀 정부의 국민통합 정책을 무산시키고, Moro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적 요소로 작용하였다(Gowing, 1979:40-42, 204-212).

3. 경제적 불평등

소수종족의 경제적 불평등은 종족갈등의 주요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특히 그것이 소수종족의 거주지역에 대한 지배종족의 침투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종족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Moro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미국 식민통치 아래로 계승되었고, 특히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기독교도들의 이주는 “Moro의 땅”에서 Moro의 비율을 급속히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Moro의 경제적 지위 또한 급속히 악화시켰다. 1919년 미국 식민통치 당국은 「공공토지법」(the Public Land Act)을 제정하고, 필리핀 내 모든 토지는 공공소유이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조상 대대로 경작해온던 Moro의 토지가 더 이상 Moro의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법은 필리핀 기독교도들에게는 최고 24헥타르까지의 토지소유를 허용하였으나, 비기독교도들에게는 단지 10헥타만을 허용하였다(Che Man, 1990:24).

곧이어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대량이주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Moro의 토지소유 비율도 급속히 낮아졌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1950년대 초 Hukks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장려하였던 부손 및 비자얀 지역의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이주정책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민다나오와 줄루군도에서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였던 Moro는 1972년에는 겨우 30% 정도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1982년에 이르러서는 그 비율이 17%로 현저히 낮아졌다(Che Man, 1990:25). 따라서 미국과 필리핀 정부의 토지정책은 Moro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으며, 그들의 생활근거를 파괴하는 것 이었다.

나아가, 필리핀 정부는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민다나오 지역의 광범한 자원개발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1977년 민다나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생산품은 필리핀 전체 수출규모의 약 25%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발정책의 혜택도 Moro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개발정책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대는 Moro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지원 이주자들 이외에 자발적으로 민다나오 지역으로 이주해온 수백만명에 이르는 기독교도들의 존재는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왔고 자신들에 익숙한 기독교도들을 선호함으로써 개발정책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도 기독교도들의 뒷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발정책 자체가 대부분 기독교도들의 정착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기독교도 지역과 Moro 지역으로 간라진 민다나오에서 양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현저히 확대되어 갔다(Che Man, 1990:27-29).

이에 따라 대부분 어업, 농업 등 전통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Moro들은 “내적 식

민주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땅에서 하위계층으로 전락하였다. 그들은 필리핀 사회에서의 주변부로, 나아가 민다나오 지역에서도 주변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필리핀 사회에서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Moro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었다. 196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0.25%가 전체 경작면적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1971년 현재 필리핀 사회는 전체 가구의 약 40%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약 20%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고, 소득분배에서도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비중차이가 15:1에 이르고 있었다(Alfonso, 1971: 336; Oferneo, 1980:488). 이같은 경제적 상황은 1970년대 초 이래 필리핀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필리핀 공산당」과 「신인민군」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온 요인들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Kessler, 1989:39-42). 이런 점에서 볼 때,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Moro 분리독립운동의 기원을 이같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서 찾을 수도 있다. 즉 Moro 분리독립운동은 전반적인 필리핀 민족의 체제도전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Moro는 “기독교도들의 필리핀 사회”에 일체감을 지니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기독교도들의 침투과 차취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다.⁴ 그러므로 Moro에게는 단지 필리핀 정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에 침투해 있는 모든 기독교도들이 다같이 적대세력이었다(George, 1980:120; Gowing, 1979:189-190). 또한 민다나오와 줄루군도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행정적 통합정책의 결과로 전국적 또는 지역 정치인들로 부상된 술탄들과 다뚜들도 대부분의 Moro에게는 “자신의 익을 위해 종족 이익을 버린 배신자이며, 억압체제와 야합한 자들”이었다(Gowing, 1979:57).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대량이주와 그에 따른 Moro의 빈곤 및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Moro의 종족적 소외감, 그리고 필리핀 정부과 기독교도들에 대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IV. 계엄통치와 분리독립운동의 전개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대량이주와 심화되는 Moro 지역의 빈곤 및 경제적 불평등은, 기독교도들이 지배하는 필리핀 국가의 이슬람교와 무슬림 사회에 대한 동화정책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Moro의 저항운동을 촉발시킬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종족분규의 객관적 여건들의 성숙이 곧 Moro의 분리독립운동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그들의 분리독립운동 노선 선택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은 국가의 대(對) Moro 정책, 국가의 통제력, 및 Moro 사회 내의 결속력 및 저항능력 등

⁴ 1963년과 1971년에 소수종족 문제를 조사한 필리핀 상원의 한 위원회도 Moro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이 지역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대량이주와 토지침탈에 있다고 지적하였다(May, 1985:113).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들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소수종족의 분리독립운동은 하나의 정태적 상태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1. Moro 사회 내 급진적 신진 엘리트들의 대두

Moro 사회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광범한 침투와 “내적 식민주의”的 심화에 따라 Moro는 자신들의 권리를 광범하게 침탈당했으며, 민다나오 지역에서의 기독교도와 Moro 간의 종족분규의 가능성도 가중되었다. Moro 엘리트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었고, 필리핀 사회에서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고 있었다. 무슬림 사회의 전통적인 엘리트였던 술탄과 다뚜들은 더 이상 실권자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공적 지위는 기독교도들에게 돌아가고 이들에게는 필리핀 사회에서 공직을 담당할 기회가 현저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가에 대한 Moro 전통 엘리트들의 저항의식 또한 깊어갔다(Gowing, 1979:55). “Moro는 자신들의 집을 짓기를 원하나, 바로 그 자신들의 집 열쇠가 자신들의 손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Moro는 아마도 자신들의 집 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집 열쇠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한 술탄의 술회(Che Man, 1990:125에서 재인용)는 이같은 전통 엘리트들의 불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다나오 지역이나 마닐라, 또는 외국 대학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세속 엘리트들은⁵ Moro 사회의 실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와 시위에 참가하면서 정치적인 감각을 익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전통 엘리트들, 특히 필리핀 정치체제 내에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엘리트들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에게 있어 전통엘리트들은 이슬람주의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도들과 야합한 존재였으며, 나아가 “무슬림이 동포 무슬림을 착취하는 봉건경제체제”를 유지시키는 자들이었던 것이다(Majul, 1988a: 901-902).

Moro 사회에서 이같은 신구 엘리트들의 불만은 1968년 3월의 이른바 “자비아 학살사건”(Jabidah Massacre)과 1971년 총선을 계기로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자비아 학살사건”이란 당시 사바섬(Sabah)을 둘러싸고 말레이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던 필리핀 군이 사바섬에 대한 비밀침투공작을 위해 충원시켰던 사마르 출신 Moro 군인 30명을 마닐라 만 입구의 작은 섬인 고레지도르(Corregidor)에서 명령불복종

⁵ 필리핀 의회의 「국민통합위원회」(CNI)는 소수종족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958년-1967년까지 학자 8,309명, 학생 1,391명을 지원하였고, 이를 중 많은 수가 미주아리 등 Moro 출신이었다(Che Man, 1990:118). 또한 1950년-1960년대를 통하여 이집트의 낫세르 정권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다수의 Moro들이 이집트 알-아자르 대학교(the Al-Azhar University)에서 교육받고 돌아왔다(Majul, 1988:901).

죄(형제 무슬림의 나라인) 말레이시아를 공격할 수 없다는 저항)를 적용하여 전격 처형한 사건을 말한다(Gowing, 1979:191-192; Majul, 1988b:173-174).

이 사건은 곧 Moro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자비야 학살사건”은 Moro에 대해 필리핀 국가와 군대가 가하는 명백한 차별대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Moro 종교지도자들과 학생들, 및 청년들의 항의시위가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꼬따바또 지역의 저명한 다수 우특 마딸람(Udtug Matalam)은 꼬따바또의 경제회복과 궁극적으로 빈나나오와 줄루 지역의 정치적 독립국가 설립을 표방하고 「무슬림 독립운동」(the Muslim Independence Movement, 후에 Mindanao Independence Movement로 개칭, MIM)을 창설하였다. MIM은 결코 무장투쟁을 전개하지는 않았고, 또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였지만 많은 Moro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Gowing, 1979:192; Majul, 1988b:174).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무슬림의 지도자들, 특히 루크난(Rashid Lucman)을 통하여 청년 무슬림들의 무장투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1969년 미주아리, 아바스(Macapanton Abbas), 하심(Salamat Hashim) 등 Moro 청년지도자들은 Moro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목표로 하는 「Moro 민족해방전선」(MNLF)을 결성하였고, 이에 가담한 청년들 중 약 90명(마라나오족 67명, 마귄다나오족 8명, 줄루족 15명으로 구성된)이 루크난과 MIM의 지원으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그 해에 사바섬으로 갔으며, 1970년에 귀국하였다(Che Man, 1990:73-77). 이들이 곧 Moro 분리독립운동의 주요세력으로 부상하였다. Moro 사회의 전통 엘리트 및 신진 엘리트들은 다같이 점차 무장투쟁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2. 분리독립운동의 촉발

1970년 중반부터 기독교들의 이주가 가장 많았던 꼬따바또 및 북 라나오 주에서 기독교도와 무슬림들간에 폭력충돌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Moro 사회의 봉기에 놀란 기독교도 정치인들은 “일라가스”(Ilagas, 쥐를 의미하는 말)라 불리는 자신들의 사설군대를 동원하여 MIM과 연결되어 있는 “블랙셔츠”(Blackshirts)라 불리는 무슬림 집단들을 공격하였다. 이같은 양측의 폭력충돌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와 질서가 완전 파괴되었으며 Moro 및 기독교도들 3만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나아가 질서회복을 위해 파견된 필리핀 군대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즉 군대의 과정은 Moro 사회에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식을 촉발시켰고, 1971년 6월 일리가스에 의해 모슬림 사원에서 부녀자를 포함해 약 70명의 Moro가 집단학살된 이른바 “마닐리 학살사건”(the Manili Massacre)을 방지하지도 못하였다(Gowing, 1979:193-194; Majul, 1988a:903-904).

이같은 사태의 연속은 1971년 11월 총선시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기독교도들과 Moro가 혼재해 있는 꼬따바또 및 라나오 주에서 Moro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기독교

도 정치인들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에 따라 마르코스가 이끄는 「국민당」(the Nacionalista Party) 소속의 후보들은 자신들의 “일리가스”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Moro 소개작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결과로 1971년 말까지 최소한 약 10만 명의 Moro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루어진 선거결과로 민다나오 지역에서 정치권력이 무슬림으로부터 기독교도들에게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1972년 초에는 이러한 종족간 무력충돌은 인접한 「남 잠보앙가」(Zamboanga del Sur)와 「북 라나오」, 그리고 「북 잠보앙가」(Zamboanga del Norte)로 급속히 확산되어 나갔다(Majul, 1988a:904-905; Gowing, 1979:194-195).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Moro에게 기독교들의 필리핀 체제에 협력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지 못함을 일깨워주었다. 그들에게 유일한 생존전략은 분리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투쟁 밖에 없었다. 분리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슬람 종교와 율법에 기초한 무슬림 사회질서, 및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Moro 사회는 자신들의 삶의 양식과 생존을 파괴하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내적 응집력과 저항 이데올로기 및 지도력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국가는 이를 지역의 이른바 “민다나오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압,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도 못하였다. 국가의 압도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구비는 소수종족의 무장봉기를 사전에 억제시킬 수 있는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당시 필리핀 국가의 군대는 무장경찰 조직인 「필리핀 경비대」(the Philippine Constabulary) 2만3천명을 포함하여 5만5천명에 불과하였다(Kessler, 1989:108, Table 4.1).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나아가 마닐라가 위치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NPA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규모의 병력으로는 멀리 필리핀 남단에 위치한 민다나오 지역에서의 소수종족 무장봉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 루크만은 사바섬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과 MNLF를 중심으로 모든 Moro 투쟁세력의 방호조직으로 「Moro 국가해방기구」(the Bangsa Moro Liberation Organization, BMLO, 후에 the Bangsa Muslim Islamic Liberation Organization, BMILO로 개칭)를 조직하였다. 1971년 루크만과 다른 Moro 고위지도자들은 리비아를 방문하여 카다피로 부터 Moro 해방운동을 위해 “모든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1972년 초에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부터, 그리고 이들의 국제회의체인 「이슬람회의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로부터 필리핀 정부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필리핀 무슬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Che Man, 1990:78; Majul, 1988a:905-906). 이로써 Moro 분리독립운동 세력은 통합된 조직과 국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Moro 분리독립운동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촉발되었으며, 1972년 마르코스의 계엄령 선포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

3. 계엄통치와 분리독립운동의 격화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은 NPA와 Moro 분리독립운동, 그리고 구체제 과두엘리트들의 “폭력적 전복과 폭동, 반란”에 의해 필리핀 국가가 긴급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선언하고, 필리핀 사회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발표하였다(Abueva, 1979:36). 그러나 계엄령의 선포는 분리독립운동을 억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Moro의 땅”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노벨 교수(Lela G. Nobel)에 의하면(1976:409-410), 계엄령 통치는 3가지 측면에서 민다나오와 쿠루군도에서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첫째, 마르코스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구축은 정치권력이 “기독교도들”的 손에 배타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엄통치는 정당화된 정치활동의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親체제對反체제의 선택을 강요한다. 셋째, 계엄통치에 뒤이은 사설군대 해체와 무기수거 조치는 Moro 해방투쟁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의 포기를 의미하였다.

이런 점에서 Moro는 마르코스의 계엄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무장분리독립운동에 가담하는 Moro의 숫자가 급속히 증대되었고, 마르코스가 민다나오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견한 필리핀 군대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계엄령의 선포와 함께 Moro 무장투쟁의 주도권은 보수적인 전통 엘리트들로부터 보다 급진적인 신진 엘리트들에게 넘어갔다. 무장 분리독립운동의 전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전통 엘리트들을 불신하고 급진적 분리독립운동을 추구하는 MNLF 중심의 신진 엘리트들이 무장투쟁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1972년 MNLF의 지도자인 미주아리와 그의 동료들은 직접 리비아를 방문하여 카다피로부터 MNLF에 대한 직접 지원을 약속받았다. 리비아는 루크만과 같은 구세대 전통엘리트들 보다 더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신진 엘리트들이 혁명투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자신들의 지원이 구세대 정치인들의 “정치”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MNLF는 필리핀 무슬림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장조직인 “Moro국가 군대”(Bangsa Moro Army, BMA)가 실질적 무장분리독립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Majul, 1988a:906-907; Che Man, 1990:78-79).

1974년까지 MNLF의 무장계렬라는 최소 1만5천명에서 최고 3만명(5만-6만명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으로 추정되었으며, 마르코스는 1973년부터 1977년 사이에 필리핀 군대의 약 2/3에서 3/4에 이르는 병력(1977년 현재 필리핀 군대의 총규모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집중적인 군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14만명정도에 불과하였다. Kessler, 1989:108-109, Table 4.1)을 이 지역에 투입시켰다. 또한 이를 무장계렬라와 필리핀 군대와의 전투에서 최소 5만명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사상자와 약 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Noble, 1987:418).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필리핀 군대에 대한 이들의 저항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Moro 무장투쟁에 참여한 한 지도자가 1974년 필리핀 무슬림 중 약 50%가 자신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약 15%는 정부를 지원하며, 나머지 35% 정도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 평가는(Majul, 1985:74), 비록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무장투쟁이 Moro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종교적, 사회경제적 차별과 억압을 배경으로 분출한 Moro의 저항운동에 대한 필리핀 국가의 무력진압 자체가 분리독립운동을 강화, 확산시켜준 결정적 요인으로 염증을 의미한다.

V. 마르코스의 정치적 대응과 MNLF의 분열

1. 「트리폴리 협약」의 정치적 의의

Moro 무장 분리독립운동의 확산을 약화시키기 위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무력진압 이외에 다양한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한 전략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이 1976년의 「트리폴리 협약」(the Tripoli Agreement)과 MNLF 분열작전이었다.

1974년 6월 쿠알라 룸푸르에서 개최된 「이슬람 외무장관회의」(the Conference of Islamic Foreign Ministers, CIFM)는 MNLF를 필리핀 무슬림의 대표로 인정하여 공식 참가시키고, Moro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영토통합과 국가주권의 틀 내에서… 정치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대해 마르코스는 1975년 중반 필리핀 남부지역을 “실질적인 자치지역”으로 재구성할 의도가 있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계속되는 OIC로부터의 Moro 문제해결과 관련한 외교적 압력, 특히 석유금수 압력을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NPA 및 Moro 분리독립운동의 확산으로 중대된 군사비 압력을 완화시킬 현실적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마르코스의 제안을 OIC가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MNLF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마르코스의 제안은 CIFM의 성명내용을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동안 MNLF에 대해 무기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던 사바섬의 주지사 무스타파(Tun Mustapha)가 1975년의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MNLF는 가장 중요한 후원세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Noble, 1981:1098-1101).

OIC의 중재하에 이루어진 필리핀 정부와 MNLF의 회의는 1976년 12월 「트리폴리 협약」으로 우선적으로 합의되었다. 그 협약의 주요내용은 민다나오, 줄루, 빛 빨라완 지역 13개 주에 각기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기구, 사법체계, 보안군, 교육체제, 재정 및 경제 체제를 갖춘 「무슬림 자치지구」를 설정한다는 것과 MNLF-정부군간의 휴전이었다. MNLF는 1973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던 민다나오와 빨라완, 그리고 줄루 군도의 20개 주를 모두 포함하는 「Moro국민국가」(the Bangsa Moro Nation) 범위 보다는 축소된 것이나, 전반적으로 CIFM의 권고내용 수준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 1월부터 양측간의 휴전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자

치지구” 설정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77년 2월 마르코스가 이들 13개 주 주민들에 대해 13개 주를 “자치지구”的 범위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MNLF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던 것이다.

마르코스는 자치지구 대상인 서부 및 중부 민다나오와 줄루 군도를 각기 「제9지역」(Region IX, 서 민다나오와 줄루 군도)과 「제12지역」(Region XII, 중부 민다나오)로 구분하는 자치지구 설정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하였다. 그리고 마르코스가 제시한 「제9지역」과 「제12지역」에는 트리폴리 협약에 명시되었던 13개 주 중에서 기독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남 다바오」(Davao del Sur)와 「남 꼬따바또」, 및 「빨라완」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마르코스의 조치는 장차 실현될 Moro 자치지역을 분할시키고, 특히 자치지구에 포함되는 13개 주 중에서 기독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3개 주를 제외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MNLF는 이 투표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1977년 4월에 실시된 주민투표—기독교도가 다수인 3개주를 포함한—에서는 이같은 마르코스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었다. 즉, Moro 자치지구는 「제9지역」과 「제12지역」으로 분리되었으며, 위의 3개주는 자치지구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Noble, 1981:1099-1102; May, 1985:115-116).

자치지구 설정에 대한 주민투표는 필리핀 정부와 MNLF간의 후속협상을 사실상 결렬시켰다. MNLF는 더 이상 필리핀 정부와 마르코스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분할된 자치지구, 그것도 13개 주에서 3개주가 제외된 상태의 자치지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MNLF와 필리핀 군대와의 전투는 그 해 10월에 재개되었다. 그리고 MNLF는 1979년 자치지구의회 선거도 거부하였으며, 당연히 이 의회는 마르코스가 주도하는 「신사회운동당」(KBL)의 정치인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이로써 마르코스는 필리핀 누슬림 지역에 대해 외형상 자치를 혜용하면서도, 자신의 통제력의 실질적인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었다. 나아가, 자치지구 설정을 통하여 마르코스는 다른 종대한 정치적 이득을 거두었다. 즉 이슬람 국가들의 국제회의 기구인 OIC로부터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Moro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이들의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배치된 필리핀 군대의 상당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NPA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고, 군사비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마르코스가 트리폴리 협약과 자치지구 설정으로 얻은 최대의 성과는 MNLF의 내부분열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 MNLF의 분열과 분리독립운동의 쇠퇴

마르코스의 독자적인 주민투표와 자치지구 설정은 Moro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해결책도 아니었고 또한 필리핀 정부와 마르코스 대통령 자신에 대한 MNLF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MNLF 지도부의 내부 분열을 표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것은 또한 마르코스가 Moro 분리독립운동 지도부에 대해 끊임없이 취해온 분열전략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구상하던 Moro 자치지구 설정이 마르코스의 주민투표에 의해 좌절되자 MNLF를 이끄는 미주아리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도전이 제기되었다. 1977년 12월 MNLF의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핵심적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핫심이 미주아리의 독재적인 리더쉽과 공산주의 동조 및 부정부패를 탄핵하고 나선 것이다. 미주아리와 핫심의 분열은 MNLF의 리더쉽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MNLF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지원도 분열시켰다. 즉 이집트는 핫심을 지원하고, 시리아의 카다피는 미주아리를 지원하였다(Che Man, 1990:84-85).

이같은 MNLF 지도부의 분열은 단순한 혁명조직의 분열 이상의 심각한 파급효과를 지닌 것이었다. MNLF는 여타 혁명조직들과는 달리 위계적으로 강력하게 통합된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르코스 체제에 대항해 투쟁하는 다양한 Moro 세력들을 상호연대시키는 하나의 연합체였다. MNLF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중앙위원회는 각 지방 투쟁세력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활동 근거지는 해외에 있었다. "Moro의 땅"에서 실질적으로 전사들을 충원하고 훈련시켜 무장투쟁에 임하는 것은 각 지방 조직들이었다. 중앙위원회는 전략적 노선의 제시와 해외지원세력의 조직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투쟁전략은 각 지방 투쟁조직들에 맡겨져 있었다.

이들 지방 투쟁세력들은 줄루, 꼬따바또, 및 라나오로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세 집단은 각기 세 주요 종족집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줄루 집단은 줄루족이, 꼬따바또 집단은 마귄다나오족이, 그리고 라나오 집단은 마라나오족이 주류를 이루었다. MNLF의 핵심적인 세 지도자인 미주아리, 핫심, 그리고 알론또(Abul Khayr Alonto, 후에는 Dimas Pundato로 교체)는 각기 이들 집단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다(Noble, 1976: 412; Che Man, 1990:82-83). 따라서 MNLF의 효과적인 무장투쟁 전개는 이들 각 주요 집단 지도자들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전제함이 없이는 성취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런데 1977년 말부터 MNLF 지도부 내에 투쟁노선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 되었던 것이다. 미주아리는 Moro의 독립 뿐만 아니라 보다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변혁을 추구하였다. 그는 MNLF의 투쟁목표를 Moro 분리독립과 함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종족이 다른 종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정치체제"의 구축이라고 천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식민주의, 착취, 독재"의 타도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그를 좌경노선으로 비치게 하였다. 특히 1973년 NPA의 정치적 방호조직인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NDF)이 "파쇼독재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미 제국주의의 타도"를 주창하면서 제시한 10대 강령에 "소수 종족들, 특히 민다나오와 산악지방 소수종족들의 자결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투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Kessler, 1989:80-81) 더욱 그러하였다. 마르코스는 미주아리를 NPA와 연대하고 있다고 공언하였으며, 이것이 1977년의 MNLF 지도부 내 분열을 가져온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May, 1985:114-115).

반면에 또 다른 핵심 지도자인 핫심은 보다 이슬람교 지향적인 보수노선을 추구하였다. 그에게 미주아리는 좌경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따라서 좌경화된 MNLF에서 탈퇴하였다. 1984년 핫심은 「Moro 이슬람 해방전선」(the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라는 독자적인 조직을 결성하였다. 또한 1978년 미주아리의 지도노선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제명조치된 알론또의 뒤를 이은, 역시 이슬람교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푸나또도 1982년 MNLF를 이탈하여 「MNLF-개혁그룹」(the MNLF-Reformist Group)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971년 MNLF의 부상에 따라 시리아의 지원을 잃어버렸던 루크만을 중심한 전통 엘리트들의 조직이었던 BMLO도 재건되었다. 이러한 MNLF 내의 분열을 방지하고 새로운 통합을 위한 노력이 「세계 무슬림연맹」(the Muslim World League)의 주도로 1983년까지 몇차례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Che Man, 1990:85-86).

MNLF의 분열은 지도자들의 개인적 야심이나 이념, 및 투쟁전략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Moro 사회 내의 종족적·문화적 집단들간의 긴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May, 1992:400). 이런 점에서, MNLF의 분열은 곧 Moro 사회의 분열로 이어졌으며, 이에 Moro 분리독립운동의 역량도 분산되었다. 따라서 MNLF의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무장투쟁세력들이 혼재하게 되었으며 무질서한 폭력과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다(Noble, 1981:1108). 통일된 세력으로서의 Moro 분리독립운동은 그 역량이 쇠퇴하게 된 것이다.

마르고스 대통령의 자치지구 설정은 Moro 사회 내에 “공동의 투쟁대상”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각 분파들간의 투쟁전략을 둘러싼 노선갈등을 표면화시켰다. 이에는 마르고스의 다양한 다른 유인책들, 예컨데 투항하는 Moro 전사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사면, 정착금 지급, 공직임명 등의 조치들도 영향을 미쳤다(May, 1985:114-115). 1978년 MNLF에서 제명된 알론또와 그 추종세력들이 마르고스에 항복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국가에 의한 억압의 완화는 분리독립운동 세력 내의 갈등과 분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민주화 과정과 분리독립운동

자치지구 설정은 마르고스에게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수는 있었으나, Moro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Moro의 땅”에서의 질서회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였다. 빈나 나오와 줄루 군도 지역은 “공식적인 정부조직”과 필리핀 군대, 및 다양한 Moro 무장세력 분파들이 혼재하는 무질서 속에 빠져들었다. MNLF의 지도부의 분열과 함께 Moro 사회 내 엘리트들도 親마르고스파, 무장투쟁파, 및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운동가들, 그리고 차세대 전문지식인들로 구성되는 무슬림 지식인들로 3분되는 양상을 보였다(Noble, 1976:1104;1987:423). Moro 사회 및 MNLF의 분열은 분리독립운동의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는 필리핀 정부에 도움을 주었을 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상대해야 하는 주도세력을 분산시킴으로써 Moro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치지구 설정은 Moro의 필리핀 사회에 대한 일체감 중대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1983년 「고윙 기념연구센타」(the Gowing Memorial Research Center)가 500명의 무슬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자아 이미지 및 집단에 대한 태도조사”的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

상자의 54.6%가 자신의 일차적 준기집단으로 무슬림(Muslim)이라 응답하였으며, 28.6%가 Bangsa Moro(Moro people, MNLF가 장려하고 있는 명칭)로, 12%는 자신이 속한 종족집단의 명칭으로, 4.2%는 무슬림 필리핀인(Muslim Filipino)으로, 3.8%는 필리핀인(Filipino)으로 응답하였다(무응답 2.6%). 그리고 “필리핀인”이란 용어가 무슬림에 대한 적절한 명칭이냐?”는 질문에 89.4%라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Noble, 1987:419 재인용). 이는 필리핀 정부가 Moro들에게 필리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심어주는 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86년 마르코스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와 아끼노(Corazon Aquino) 정권의 성립에 따른 필리핀 정치의 민주화는 Moro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주었다. 아끼노 대통령은 국민화해정책을 표방하면서 1986년 9월 미주아리의 고향인 졸로(Jolo)에서 미주아리와 만나서 필리핀 정부와 MNLF간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끼노 대통령은 미주아리가 Moro의 영웅으로 민다나오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MILF 및 MNLF-개혁그룹은 이 협상에 초청하지 않았다(Majul, 1988b: 176-177). 아끼노는 가장 강경한 분리독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MNLF를 협상상대로 Moro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또한 1987년 2월에 개정된 헌법에도 “무슬림 민다나오와 꼬르델라스에 자치지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와 MNLF의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자치지구의 범위를 둘러싸고 합의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 당시의 「제9지역」과 「제12지역」의 10개 주를 주장하고, MNLF는 트리폴리 협약에 명시된 13개 주를 주장하였던 것이다(Majul, 1988b: 177-180).

MNLF와의 협상결렬에도 불구하고, 1989년 8월 아끼노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구 조직법」(the Organic Act for the Autonomous Region of Muslim Mindanao)을 제정하고, 그 해 11월에 13개 주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가 실시되기 직전에 행해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독교도 유권자들의 78%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반면에 Moro 유권자들은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 Eastern Economic Review(FEER), 23 November, 1989).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는 13개 주 중에서 단지 4개주에서만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4개주는 무슬림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줄루, 파워-파워, 마귄다나오 및 남 라나오 주들이었다.

1990년 2월에 치루어진 ARMM 첫 총선은 MNLF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라모스(Fidel Ramos) 대통령 취임 후인 1993년 3월에 실시된 두번째 총선에서도 MNLF는 역시 불참하였으나, 평화롭게 치루어졌다(The Manila Times, April 2, 1993). 또한 아끼노 대통령의 국민화해 정책을 이은 라모스 대통령의 「국민화해·발전 프로그램」(the National Reconciliation Development Program)에 호응해 투항하는 Moro 전사들도 늘어나고 있다(Manila Bulletin, Feb. 8, 1993).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정치일정의 진행과 라모스 대통령의 국민화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Moro의 땅”은 여전히 무정부적 무질서 상태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FEER, May 6, 1993).

비록 필리핀 국가에 의한 강압적 억압정책과 군사작전은 사라졌지만, 이 지역에서의

이슬람 절서와 무슬림 삶의 양식을 위협하는 기독교도들의 존재, 그들과의 지난 20여년 간의 유혈충돌이 나은 적대의식, 그리고 Moro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Moro 분리독립운동을 발동시킨 근원적 요인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으로 필리핀 국가와 Moro간의 무력충돌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급진적인 분리독립운동도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4년 최고 3만명까지 육박하던 MNLF 세력은 1989년 현재 2천5백 명에서 5천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 좋은 증거이다(FEER, November 23, 1989). 필리핀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Moro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VI. 결 론

필리핀 Moro의 분리독립운동은 제2차 대전 후 독립한 제3세계 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하였던 국민통합의 위기(national integration crisis)와 국가형성의 위기(state-building crisis)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학문적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종족갈등의 근원은 주로 종족간의 문화적 갈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갈등에서 찾아졌다. 그러나 문화적 갈등과 사회경제적 갈등의 존재 그 자체로 곧 소수종족의 분리독립운동 선택과 그 전개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리독립운동은 종족갈등의 극단적 형태이며, 지배종족이 지배하는 국가의 즉각적인 무력진압을 초래할 수 있는 노선인 것이다. 또한 분리독립운동은 하나의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소수종족의 분리독립운동 선택과 그 전개과정은 지배종족의 국가와 소수종족간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즉, 양자간의 힘의 분포상태, 소수종족에 대한 국가의 정책대응, 및 소수종족 내의 결속력과 리더쉽 등이 상호교차하는 구체적 국면 속에서 분리독립운동의 전개양상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주어진 문화적, 사회경제적 갈등 위에서, 지배종족의 국가가 소수종족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제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수종족의 “생존전략”을 위협하는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추구하였을 때, 분리독립운동이 촉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소수종족 내부의 분파갈등과 리더쉽 분열은 분리독립운동 세력의 역량을 심각히 약화시키게 되며, 이는 국가의 억압적 조치가 이완되는 시기에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같은 관점에서 필리핀, 특히 마르코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Moro 분리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Moro의 저항운동을 촉발시킨 근원은 멀리 스페인 식민통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필리핀 무슬림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동화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아가, 미국 식민통치 아래, 특히 1950년대에 이루어진 민다나오 지역으로의 기독교도들의 집중적인 대량이주, 그리고 국가의 차별적 토지정책 및 개

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등이 이들의 저항운동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나 무장투쟁에 의한 분리독립운동은 이같은 중첩된 갈등과 위기의식 속에서 표출된 계기적 사건들과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위협하는 국가의 억압조치들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특히 계엄령의 선포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소수종족의 저항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강제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필리핀 국가가 Moro 저항운동에 취한 억압적 조치들은 오히려 보다 급진적인 분리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트리폴리 협약과 자치지구 설정으로 대변되는 마르고스의 유화정책은, 비록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 하더라도, “공통의 적에 대한 긴장감”을 이완시키면서 주도적 분리독립운동 세력인 MNLF 내의 분파갈등을 분출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MNLF의 내적 분열은 분리독립운동을 위한 무장투쟁 역량을 심각히 약화시켰다. 특히 각 지방 무장투쟁 세력의 연합체적 성격을 지닌 MNLF의 특성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훨씬 더 심각하였다. 나아가 1986년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진행된 필리핀 정치의 민주화는 급진적 분리독립운동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Moro 분리독립운동의 이같은 전개과정을 볼 때, 필리핀 사회에서 아직도 풀지못한 과제로 남아 있는 Moro 문제는 궁극적으로 상호 문화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가 성취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민주화 과정의 진전과 Moro 지역의 자치 및 특수성을 인정하는 국가의 정책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증대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평화적 해결은 소수종족 갈등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국가와 소수종족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Abueva, Jose V.

1979 “Ideology and Practice in the ‘New Society’,” David A. Rosenberg, ed. *Marcos and Martial Law in the Philippin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lfonso, Caridad S.

1971 “Toward a More Participative Economic System for the Philippines,” *Philippin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5(3-4).

Brown, David.

1988 “From Peripheral Communities to Ethnic Nations: Separatism in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61(1).

Che Man, W. K.

1990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nnor, Walker.

1984 "Eco- or Ethno-Nationalism," *Ethnic and Racial Studies*, 7(3).

De Vos, George and Romanucci-Ross, Lola. eds.

1975 *Ethnic Identity: Cultural Continuities and Change*. California: Mayfield.

Furnivall, J. S.

1948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George, T. J. S.

1980 *Revolt in Mindanao: The Rise of Islam in Philippine Politics*.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Gowing, Peter Gordon.

1979 *Muslim Filipinos: Heritage and Horizon*. Quezon City: New Day.

Hechter, Michael.

1975 *Internal Coloni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Kerkvliet, Benedict J.

1977 *The Huk Rebellion: A Study of Peasant Revolt in the Philippin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essler, Richard J.

1989 *Rebellion and Repression in the Philippin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Majul, Cesar A.

1973 *Muslims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1985 *The Contemporary Muslim Movement in the Philippines*. Berkeley: Mizan Press.

1988a, "The Moro Struggle in the Philippines," *Third World Quarterly*, 10(2)

1988b, "The Moros of the Philippines," *Conflict*, 10(2/3)

May, R. J.

1985 "Muslim and Tribal Filipinos," R. J. May & Francisco Nemenzo, eds. *The Philippines After Marcos*. London: Croom Helm.

1992 "The Religious Factor in Three Minority Movements: The Moro of the Philippines, The Malays of Thailand, and Indonesia's West Papuan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3(4).

Noble, Lela G.

1976 "The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Pacific Affairs*, 49(3).

1981 "Muslim Separatism in the Philippines, 1972-1981: The Making of a Stalemate," *Asian Survey*, XXI(2).

1987 "Muslim Grievances and the Muslim Rebellion," Carl H. Lande, ed. *Rebuilding A Nation: Philippine Challenges and American Policy*. Washington, D.C.: A Washington Institute Press.

- Oferneo, Renc E.
 1980 *Capitalism in Philippine Agriculture*. Foundation for Nationalist Studies Philippine.
- Rosenberg, David A. ed.
 1979 *Marcos and Martial Law in the Philippin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mith, Anthony D.
 1984 "Ethnic Persistence and National Transform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5 (2).
- 1987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 Stone, John.
 1979 "Internal Coloni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2 (3).
- Suhrke, Astrid and Noble, Lela G.
 1977 "Muslim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strid Suhrke and Lela Noble. eds, *Ethnic Conflict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raeger.
- von der Mehden, Fred R.
 1968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Wood, John R.
 1981 "Secession: A Comparative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1).
- Wurfel, David.
 1988 *Filipino Politics: Development and Deca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oro Separatist Movement under Marcos regime in the Philippines

Youngkug Chung

The Moro separatist movement in the Philippines is one of the typical cases of "crisis of nation-building" in multi-ethnic countries. This study explains the dynamics of Moro separatist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relation model between the state and minority ethnic community.

Moro is not a single ethnic group, but is consisted of the 13 cultural-linguistic groups who are concentrated in western and southern Mindanao island, the Sulu Archipelago, and coastal areas of southern Palawan. They can be defined as a religious minority group who embrace Islam in a Catholic-dominant Philippine society.

Moro's struggles against the dominant Christian group have a long history since the

early Spanish Era. This conflict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cultural, socio-economic tensions between Moro and Christians. The fluctuation of the separatist movement, however, has been more related with political factors than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In 1972 the radical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MNLF) launched an armed struggle against Philippine government when President Marcos declared a repressive authoritarian rule. However, the breakdown of Marcos's authoritarian regime and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 politics since 1986 has weakened the armed struggle by the Moro separatists. The leadership of MNFL, which has led a radical line of Moro separatism, has faced serious factional conflicts and disruptions.

Although the basic factors of ethnic conflicts in multi-ethnic countries can be cultural and economic tensions between dominant ethnic groups and minority communities, the dynamics of separatist movement can be explained more appropriately by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state's ethnic policy and repressive capacity, and the cohesion and leadership of minority community.

정영국, 연세대 강사

주소 : (150-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APT 407-102호

Tel : 592-0926(H)